

## 머 리 말

흔히 사람들은 인생의 봄은 청춘시절이라고 한다.

하지만 우리 전쟁로병들은 황혼기에 이른 오늘에도 인생의 봄계절에 살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열로, 빛발로 하여 인생말년에 열정의 청춘기를 되찾은 전쟁로병들.

오늘도 이들은 은혜로운 태양의 품속에서 비록 육체는 늙었어도 생의 희열과 활력에 넘쳐 후대들의 존경속에 이 땅의 귀중한 보배들로 떠받들리우고있다.

## 전승세대에 드리신 숭고한 경의

전승세대.

이는 목숨바쳐 조국을 지켜낸 수호자들에게 대한 부름이다.

죽음도 두렵없이 조국을 수호한 그들의 정신은 고귀한 것이며 그 위훈을 떠난 오늘을 생각할수 없다.

하지만 그들의 위훈을 추억해주는 후대들이 있다고 하여 고귀한 전통이 결코 저절로 이어지는것은 아니다.

그들의 정신과 위훈을 귀중한 재부로 신성히 여기며 력사와 시대앞에 참답게 빛내어나갈 때만이 매 세대가 물려주고 이어가는 고귀한 정신적유산으로 될수 있다.

평양의 보통강반에 시대의 국보적인 대기념비적창조물로 거연히 솟아있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이 그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해방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불멸의 업적이 깃든 혁명사적물들과 우리 인민과 인민군군인들이 영예롭게 조국을 수호한 투쟁정신을 보여주는 전쟁유물들이 보존되어있는 대전시관이다.

오늘도 오각별이 빛나는 공화국기를 힘차게 휘날리며 전화의 영웅전사가 승리를 웨치는 불멸의 기념탑앞에 서면 눈앞에 어려오는 하나의 뜻깊은 친필글발이 있다.

### 《위대한 년대에 경의를 드린다》

승리상의 대돌에 금별처럼 빛나는 글발을 한자한자 읽어볼수록 가렬처절했던 전화의 격전터들과 전승세대의 위훈

을 더듬으시며 경의의 친필을 써나가시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모습이 송엄히  
안겨온다.

주체101(2012)년 7월 8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찾으시였다.

전승기념관을 돌아보시면서 그이께서는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승리는 한마디로  
사상의 승리, 전략전술과 전법의 승리,  
불굴의 정신력의 승리라는 역사적정의를  
내리시였다.

그러시고 우리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고수  
하고 전세대 투쟁정신을 이어나가게 하는  
데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이 맡고있는  
임무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조국해방  
전쟁승리기념관은 우리 인민들과 군인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군건설업적과 탁월한 군사

전략사상, 조국해방전쟁의 경험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사상교양의 거점이며 승리의 전통교양의 중심지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로부터 얼마후 전승기념관을 세계적인 기념관으로 꾸릴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히 고계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또다시 현지에 나오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개건정도가 아니라 새로 건설할 통이 큰 결심을 하시고 그 위치까지 몸소 확정해주시였다.

그리고 설계로부터 건설력량편성, 자재보장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가르치심과 대책을 모두 세워주시였다.

그이의 발기와 구상은 일군들은 물론 온 나라 인민들을 크나큰 격정에 휩싸이게 하였다.

어제가 없는 오늘이 없고 오늘이 없는

래일이 있을수 없다.

이러한 숭고한 리념으로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업적과 더불어 로병들의 조국수호정신이 살아숨쉬는 전승기념관을 세상에 둘도 없는 전승관으로 훌륭히 일떠세워 전승세대의 위훈을 조국청사에 영원히 빛내여주실 의지를 표명하시였던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건설을 정력적으로 령도하시던 나날은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원썩들과의 전면대결전이 그 어느때보다 치렬하게 벌어지던 준엄한 나날이었다.

하지만 나라의 정세가 시시각각 전쟁접경으로 치닫고있던 그때 전선시찰의 길에서도 언제나 그의 마음은 기념관건설장에 가계시였다.

1950년대 영웅전사들이 가렬한 싸움터마

다에서 떨친 위훈을 기념관에 빛나게 새겨 주고싶고 기념관을 자그마한 손색도 없이 완전무결하게 완성하여 전승 60돛을 뜻깊게 경축하도록 해주시려는것이 그의 응지였다.

이렇게 되어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의지에 받들려 세계적인 기념관으로 땅을 차고 새롭게 솟아오르기 시작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하나의 실물과 전투자료, 사판과 미술작품에도 1950년대 투쟁정신이 최대의 높이에서 맥박치도록 지도해주시였으며 영웅전사들의 모습을 더욱더 빛나게 해주시려 깊이 마음쓰시였다.

영웅들의 조각상명판을 조각상 앞면이나 측면의 중심아래부분에 면을 고르롭게 하여 붙여놓도록 하나하나 가르쳐주시고 영웅홀에 크게 형상한 붉은 기폭들에 전

화의 영웅들이 남긴 말과 전시가요, 시구절을 새기도록 해주시였다.

정말 건물형식과 외부장식, 내부의 학술내용구성과 하나하나의 전시물배렬에 이르기까지 그이의 불면불휴의 령도의 손길이 어려웠지 않은것이란 하나도 없다.

전승기념관은 한마디로 안팎이 100% 위대한 전승의 력사와 전통을 전하는 하나의 립체적인 대전승관으로 완벽하게 꾸려졌다.

새롭고 특색있게 개건된 기념탑의 승리상대돌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친필이 금문자로 정중히 모셔짐으로써 조국을 지켜싸운 전승세대의 삶은 영광의 절정에 올랐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1950년대 조국수호자들의 위훈을 조국청사에 길이 전하시며 힘있게 쓰신 불멸의 친필은 단순한 글발이 아니였다.



그이께서 위대한 전승세대에 주시는 크나큰 믿음이였고 그들의 정신을 새세대들에게 반드시 넘겨주시려는 의지의 피력이였다.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돛이 되는 주체102(2013)년 7월 27일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훌륭히 일떠선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개관식이 성대히 진행되였다.

전승기념관을 돌아보며 경탄을 금치 못해하면서 외국의 벗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은 세계가 공인하는 위대한 정치가, 위대한 군사전략가이신 **김정은**령도자만이 일떠세울수 있는 영원한 승리의 기념비이다.》, 《절세의 위인 **김정은**령도자를 모신 조선은 참으로 강대한 나라이다.》

전승세대가 지니였던 고귀한 투쟁정신과 녀을 후손만대에 길이 빛내여가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은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에도 뜨겁게 어려있다.

평양의 솔푸른 석박산기슭에는 조국수호전에서 영웅적위훈을 떨친 려사들의 넋이 고이 잠들고있다.

원래 평양시에는 인민군영웅렬사묘들이 꾸려져있었다.

그러던것이 풍치아름다운 명당자리에 려사묘가 새롭게 더 훌륭히 건립되게 되었다.

전승 60돛을 맞으며 인민군렬사묘를 새로 건설할것을 발기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승리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높이 받들고 용약 떨쳐나선 유명무명의 인민군렬사들의 영웅적위훈이 깃들어있다고 하시면서 그 터전도 몸소 잡아주시였다.

그러시고 《인민군렬사묘》라는 이름대신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라고 친히 이름

까지 새로 지어주시었다.

이때부터 조국해방참전렬사묘가 새롭고 특색있게 건설되기 시작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나라일이 바쁘신 가운데서도 귀중한 시간을 내시여 인민군렬사추모탑과 화환진정대, 묘비의 형식과 글체에 이르기까지 려사묘가 추모감이 나면서도 무게있게 건설되도록 하나하나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뿐만아니라 려사들을 한명한명 뜨겁게 안아 영생의 언덕에 높이 내세워주시었으며 세상이 알게 해주시었다.

조국해방전쟁승리 63돐을 앞둔 주체105(2016)년 7월 어느날 조국해방참전렬사묘에서는 만사람의 놀라움과 깊은 감동속에 공화국영웅 김창걸의 가명과 함께 장창렬의 본명이 새겨진 묘비가 새롭게 세워지게 되었다.

렬사묘가 세워진 초기에는 묘비에 김창결로만 쓰여있었다.

김창결영웅은 주체39(1950)년 12월 전투에서 가슴으로 적화구를 막아 돌격로를 열어놓은 공화국영웅이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아이들은 김창결영웅의 위훈에 대한 노래를 많이 불렀다고 한다.

헌데 김창결로 불리우게 되는데는 소대장이었던 장창결이 전사한 후 전쟁의 혼잡속에 영웅내신서와 문건들이 오르내리면서 성과 이름이 바뀌어져 김창결이 되었으며 그렇게 오기된 이름이 본명을 대신하게 되었던것이다.

이러한 사연을 보고받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영웅의 이름과 그 묘비를 정령에 있는대로 바로잡아줄데 대하여 배려해주시였다.

그리하여 66년동안이나 가명 아닌 가명으로 불리우던 영웅이 자기의 본명을 되찾고 새롭게 영생의 언덕에 올라서게 되었다.

비록 련사들이 나서자란 고향, 최후를 마친 날은 다르지만 그들모두가 안긴 곳은 한품, 그것은 바로 조선로동당의 따사로운 품이었다.

주체102(2013)년 7월 현지지도를 마치시고 수백리 밤길을 달려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쌓이신 피로도 푸실 사이없이 흠먼지날리는 건설장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공사현장을 돌아보시면서 조국수호기념탑의 형상과 련사묘구획의 록지조성, 울타리형성문제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이날 뜻깊은 말씀을 남기시였다.

옛날부터 묘에는 묘주가 있다고,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에서 전사한 인민군렬사들을

안치한 묘의 묘주는 우리 당이라고.

렬사묘의 묘주는 조선로동당!

력사에 있어보지 못한 가장 고결한 혁명적의리의 세계가 펼쳐졌다.

이 세상 어느 위인도 수십년전에 떠나간 렬사들을 못잊어 이렇듯 혁명적당이 묘주로 되어야 한다고 한적은 없었다.

그리고 자기 조국을 지켜 전장에서 싸우다 희생된 사람들을 위해 세운 기념비나 묘들은 많아도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와 같이 령도자의 깊은 관심과 배려속에, 뜨거운 존대속에 집권당이 묘주가 된 실례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석박산에 올려퍼진 이날의 뜻깊은 말씀은 전승세대가 세운 불멸의 위훈을 끝없이 빛내여가시려는 철석의 신념이 담긴 력사의 메아리였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주체110

(2021)년 7월 27일 0시 유가족들도 찾기 전에 먼저 련사묘를 찾으시여 꽃송이를 진정하시고 위대한 년대의 영웅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이날 그이께서는 전승세대의 숭고한 혁명정신과 영웅적위훈은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열백번 바뀐다 해도 후대들의 애국열, 투쟁열을 끊임없이 분발승화시키며 혁명의 새 승리를 향한 우리 인민의 승리적전진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게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바로 그것이였다.

련사들의 위훈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며 빛내이는 사업을 당과 국가의 중대사로 여기시였기에 조선로동당이 묘주가 되도록 하시였고 련사묘를 찾으시여 경의를 표시하시였던것이다.

세월이 흘렀어도 그이께서는 조국수호의

전장에서 피와 생명을 바친 련사들을 한시도 잊은적 없으시였고 그들을 더 뜨겁게 품어안아주시였다.

련사묘를 돌아본 외국의 한 인사는 기폭에 감싸여져있는 총대와 기발우에 부착된 영웅메달이 아주 감명깊다고 하면서 조국을 위해 피흘린 전사들모두에게 안겨준 이 영웅메달은 귀국이 자기의 장한 아들딸들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조선로동당이 전사들에게 돌려주는 사랑과 낱을 따라 강대해지는 공화국이 있어 련사들은 오늘 또다시 이 땅에 태어난것이다, 이런 영웅들은 오직 조선에서만 볼수 있다고 진정을 토로하였다.

정녕 위대한 **김정은**시대에 새롭게 태어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과 조국해방전쟁참전련사묘는 위대한 승리의 전통을 안아온 전쟁로병들에게 드리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최대의 경의이며 그 전통을 대를 이어 끝없이 빛내여가시려는 열렬한 걱정이 함축된 고귀한 결정체이다.

오랜 세월속에 세대와 세대는 바뀌였어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도덕의리심에 떠받들려 전승세대의 그 위훈, 그 정신은 영원히 빛나고있으며 노래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에게 경의를 드린다》의 구절구절이 후대들의 심장을 쿵쿵 울려주고 있다.

이 땅을 지켜 목숨바친  
용사들은 살아있다  
미제를 이긴 그 정신은  
후손들의 넋을 키운다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에게  
경의를 드린다 경의를 드린다  
...

## 세월의 망각을 헤쳐

세월이 흐르면 모든것이 희미해진다는 말이 있다.

이 땅우에 전쟁의 포성이 멎은지도 어느덧 반세기가 훨씬 지나갔다.

반세기라면 잊혀지는 사람들도 많고 사람들의 기억속에 삭막해지는 사실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모든것을 싱고간다는 세월이 수십년이 지났어도 우리 전승세대의 위훈은 더욱더 빛나고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전쟁로병들이 후대들의 기억속에 잊혀지지 않는 전승세대로 깊이 새겨져있는것은 전쟁로병들을 그토록 잊지 못해하시며 그들의 위훈을 길

이 빛내여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따뜻한 품이 있기때문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국수호의 길에 소문없이 바쳐진 피와 생명, 남모르는 하나하나의 위훈까지도 다 찾아 영광의 단상에 내세워주시고 보석처럼 빛내여주시였다.

아래의 이야기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품속에서 로병들의 위훈은 세월의 이끼속에 절대로 사라질수 없음을 가슴뜨겁게 전해주고있다.

지금으로부터 9년전인 주체102(2013)년 6월 사람들의 놀라움속에 83살의 로병이 공화국영웅칭호를 수여받는 화폭이 펼쳐졌다.

영웅칭호를 받으며 세월의 흐름속에 줄아든 로병의 두어깨는 걱정으로 세차게 오르내리였다.

해방전 대대로 소작살이신세로 살아가다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라를 찾아주신 후에야 비로소 땅의 주인이 되어 참된 삶을 꽃피울수 있었던 그의 가정이였다.

해방후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땅이 너무도 귀중해 호미를 쥐였던 손에 전투비행기의 조종간을 억세게 틀어잡고 나라의 하늘을 지키는 비행사가 되였다.

전화의 나날에는 스무살을 갓 넘긴 나이였지만 어엿한 비행중대장으로까지 자라나 맡겨진 전투임무들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 령활한 전법으로 용감하게 싸워 적들이 것처럼 자랑하던 최신형전투기 4대를 격추시키는 자랑스러운 전투성과도 거두었다.

그후 근위비행련대의 대대장, 련대장을 거쳐 비행부대사단장으로 오랜 기간 복무

의 길을 걸어오면서도 그는 자기의 전투공로와 군사복무경력에 대하여 별다르게 생각지 않았다.

조국해방전쟁시기 총을 잡고 싸운 군인이라면 누구나 거둘수 있는 평범하고도 응당한것이라고 여기였던것이다.

그런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60년세월 속에 본인자신도 감감 잊고있던 위훈을 귀중히 여기시며 그에게 공화국영웅칭호를 수여하도록 은정깊은 사랑을 안겨주시였다.

83살에 받은 공화국영웅칭호, 이것은 결코 한 전쟁로병만이 받아안은 영광이 아니다.

로병들의 공로를 금싸래기처럼 아끼고 내세워주는 태양의 품속에서 전쟁시기의 평범한 처녀간호원이 백발이 된 고령의 몸에 공화국영웅칭호를 수여받는 사랑의 화폭도

펼쳐지게 되었다.

주체102(2013)년 12월 어느날 수도 평양에서는 한 전쟁로병에게 공화국영웅칭호를 수여하는 모임이 진행되었다.

전 철도병지휘부 진료소 간호원이었던 그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칭호와 함께 금별메달 및 국기훈장 제1급을 수여한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전달되었다.

일상생활에서 볼 때 특별히 눈에도 크게 띄우는것이 없었고 더우기 이제는 여든살을 가까이한 소박한 녀성이었다.

이런 녀성이 어떻게 되어 그것도 고령의 몸에 영웅칭호까지 받게 되었는지 그 사연에 대해 참가자들은 다는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이름은 라명희.

나라없던 세월 어려서부터 남의 집 아이

보개노릇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처녀, 갖은 천대와 멸시속에 속절없이 시들어야 했던 처녀가 바로 라명희녀성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아오신 조국해방은 그의 운명에서 극적인 전환을 가져왔다.

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뵈오려고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난생처음 마을앞산을 넘어본 외태머리소녀가 웃음많은 처녀로 꽃같이 피어나던 그 시절 그의 작은 가슴속에는 위대한 은인에 대한 고마움과 신뢰심이 바위처럼 자리잡았다.

원썩들이 조국땅에 침략의 불을 지르자 라명희는 두살이나 나이를 불구어 인민군대에 입대하여 간호원으로 있으면서 불타는 락동강도 건르고 아슬아슬한 위험속에서 부상을 당하면서까지 쓰러진 전우를 무사히 구원하였다.

준엄한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와 그이의 명령을 목숨바쳐 관철하는 인민군전사들의 모습을 체험하며 그는 조국은 곧 수령님의 품이고 그 품속에 자기의 운명도 있다는 것을 심장으로 절감하게 되었다.

이렇게 수령을 어떻게 받들고 옹위해야 하는가를 억척의 신념으로 간직하였기에 그는 전쟁이 끝난 후에도 군복을 벗지 않았다.

더우기 나쁜 놈들이 우리 당을 헐뜯다 못해 비렬한 음모까지 꾸미는것을 알았을 때에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위대한 수령님을 옹위하여나섰다.

그후 라명희는 제대되어 자기의 공로를 누구나 할수 있는 일로 여기며 조용히 고향으로 내려가 병원에서 묵묵히 일하였다.



병원에 온지는 얼마 안되었지만 환자들에게 정성을 기울이는 마음씨고운 처녀가 어떤 위훈을 세웠는지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전쟁시기 당한 심한 부상으로 영예군인이 된 불편한 몸이었지만 많은 자료들을 연구하며 환자치료에 전념하였으며 스스로 전문의사가 되어 8년동안이나 인적드문 산골에서 치료사업을 한적도 있었다.

그리고 당의 사랑과 믿음이 커갈수록 자신을 더욱 가다듬으며 후대들에게 전승세대의 투쟁정신과 넉을 심어주면서 전쟁로병의 본분을 다하였다.

그는 자기가 한 일을 너무도 응당한것으로 여기면서 누구에게도 내색하지 않았으며 깨끗한 량심과 의리로 여생도 전화의 그날처럼 그렇게 살았다.

이러한 결국한 성품으로 하여 그의 위훈

은 세월의 이끼속에 조용히 묻히게 되었다.

하지만 그가 세운 공로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고 누구나 쉽게 발휘할수 있는 위훈이 아니었다.

그의 영웅적위훈을 두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더없이 귀중히 여기시며 로병이 묵묵히 걸어온 인생에 영광과 행복을 가득히 채워주시였다.

전승 60돛이 되는 해의 12월초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인민군대의 해당부문에서 올린 라명희의 공로와 관련한 문건을 보시고 반세기이상이나 알려지지 않았던 이름없던 한 전쟁로병의 위훈을 공화국영웅메달과 더불어 내세워주시였다.

인생말년에 영광의 단상에 오른 라명희는 고마움의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였다.

그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그리움과

다함없는 고마움으로 온밤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라명희를 전후시기 공로를 세운 로병이라고 하시며 또다시 높이 평가해주시었다.

가슴에 번쩍이는 영웅메달의 무게를 새삼스럽게 느끼며 그는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고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굳게 믿고 따르는 길에 너희들의 운명이 있고 미래가 있다. 이것은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전쟁로병으로서 너희들 새세대들에게 하고싶은 말이다.》

주체109(2020)년 10월 그가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를 받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애석한 심정을 금치 못하시여 그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주시었다.

그리고 그의 유해를 애국렬사릉에 안치하도록 하시어 수령결사옹위의 길에서 발휘한 평범한 녀병사의 영웅적위훈을 온 나라가 다 알도록 해주시였다.

묘비에 새겨진 글발은 비록 길지 않지만 값높은 위훈을 수놓은 영웅의 모습은 오늘도 별처럼 빛나고있다.

사람들은 흔히 전쟁사에서 용맹을 떨친 명장이나 영웅의 이름은 외워도 그 위훈을 글로 남기는 종군기자들의 이름을 새겨보는 때는 별로 없다.

허나 전장에 뿌린 종군기자들의 값비싼 피와 땀은 위훈이라는 한마디로 다는 대신할수 없다.

하기에 우리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전승기념탑의 영웅군상들가운데는 종군기자의 모습도 당당히 세워져있는것이다.

해방전 쟁쟁한 신인작가로 일본땅에 파

문을 일으키고도 나라가 없던탓에 《불은 분자》로 몰려 류치장신세를 저야 했던 김사랑.

해방후 김사랑은 오매에도 그림던 위대한 수령님을 직접 만나뵙고 수령님의 품속에서 참다운 문필활동가로 성장하였다.

주체39(1950)년 6월 전선으로 탄원해 나간 그는 치열한 전투들이 벌어지는 속에서도 수많은 종군기들을 집필하여 인민군전투원들을 영웅적위훈으로 불러일으켰다.

그러던중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가 시작되었다.

김사랑을 비롯한 종군기자들과 작가들은 적들의 포위와 추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련일 강행군을 하였다.

이때부터 김사랑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

였으며 혼수상태에까지 빠지게 되었다.

그는 자기가 대오의 짐이 된다고 생각하고 동지들에게 자기를 두고 떠나줄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면서 비록 대오에서 떨어지지만 끝까지 싸우겠다는 자신의 결심을 담은 편지를 남기었다.

그후 적구에 떨어진 김사량의 생사여부는 그 누구도 몰랐다.

오래동안 알려지지 않는 그의 운명을 두고 외부에서는 《김사량실종설》을 내돌렸고 그가 복잡한 경력과 가정환경으로 매장되었다는 여론까지 퍼뜨리었다.

또 여기에 일부 편협한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며 머리를 기웃거리었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작가를 변함없이 믿어주시고 그의 명예와 가족들을 끝까지 지켜주시

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김사량은 정의감이 강하고 량심적이며 신념이 있는 사람이라고, 신념이 있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시며 자신께서는 그가 생명의 최후순간까지 견결히 싸웠으리라 믿는다고 확신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한 지식인의 정치적생명을 빛내여주시려고 적후투쟁을 하다가 들어온 사람들과 여러 출판물들을 통하여 그의 생사를 알아보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그리하여 그가 지리산인민유격대에서 출판선전사업을 맡아보다가 적들의 포위속에 들게 되자 《김일성장군 만세!》를 소리높이 웨치며 장렬하게 자폭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한 종군작가의

투쟁위훈을 높이 평가하시고 그가 희생된 지 60여년이 지났지만 그에게 공화국영웅 칭호를 수여하며 전승 60돐을 계기로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에 안치하도록 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

주체102(2013)년 7월초 조국해방전쟁승리 기념관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날 공화국영웅홀도 돌아보시였다.

그러시고 영웅홀에 종군작가였던 김사랑 영웅의 자료도 전시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여야 하겠다고 하시며 당에서는 김사랑이 전사한지 60여년의 세월이 흘러갔지만 그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여 공화국영웅칭호를 수여하도록 하였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인류문화사를 보면 종군한 문예인들이 수없이 많다.

그러나 자신의 영웅적인 최후가 영원히



알려질수 없는 정황에서도 수령만세를  
웨치며 장렬하게 자폭한 사람은 김사랑뿐  
이다.

그의 심장속에는 살아도 죽어도 오직 자  
기 수령만을 굳게 믿고 따르려는 신념과  
의지가 확고하게 간직되어있었다.

그 정신이 귀중하시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후대들이 이어받아야 할 가  
장 값높은 사상정신적유산으로 내세워주시  
였던것이다.

작가는 비록 떠나갔어도 그가 북녘하늘  
을 우러러 터친 생의 메아리는 태양의 품  
속에서 후대들의 심장속에 영원히 새겨져  
있다.

세상에는 전쟁로병들이 있는 나라들이  
적지 않지만 그들의 위훈이 하나와 같이  
금별이 되어 세대와 세대를 이어 빛나는것  
은 아니다.

일부 나라들에서는 조국과 인민을 위해 싸운 전쟁참가자들의 위훈이 모독당하고 그들의 공적이 무참히 훼손되는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지고있다.

더욱더 가슴아픈것은 그들이 사회에서 조롱과 랭대를 받으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전쟁시기 세운 공로로 받았던 훈장과 메달들까지 팔지 않으면 안되는 비참한 사태가 벌어지고있는것이다.

사망한 다음에는 존대는 고사하고 장례를 치를 돈조차 없어 유가족이 길거리에 나와 동냥까지 하고있다.

허나 전쟁로병들을 더없이 아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세상을 떠난 전사에게까지 영생의 삶을 안겨주시였다.

로병들의 위훈은 결코 그들의 앞가슴에 번쩍이는 훈장과 메달로만 빛나는것이 아니다.

진주보석도 빛을 받아야 반짝이듯이 세  
월의 락엽속에 묻힐번하였던 이들의 위훈  
도 우리 원수님의 은혜로운 빛발아래 빛  
나게 되었다.

## 나라의 보배, 혁명의 보배로

새로운 주체100년대가 시작된 이후 우리 나라에서는 각이한 부문별대회들이 열리었다.

그중에서도 제일 많이 진행되고 온 나라를 울리는 가슴뜨거운 화폭들이 끝없이 펼쳐진 대회가 있으니 그것은 다름아닌 전쟁로병대회이다.

주체101(2012)년 7월.

조선소년단창립 66돐 경축행사가 성대히 진행되고 모두가 무한한 행복감에 잠겨있던 때 제2차 전국로병대회가 열리게 된다는 격동적인 소식은 또다시 온 나라 방방곡곡에 거대한 지진파마냥 세찬 충격과 진동을 가져다주었다.

격동과 환희로 진감시킨 제2차 전국로병  
대회는 우리 전쟁로병들을 끝없이 아끼고  
사랑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직접적인  
발기에 의하여 마련되었다.

전승절을 앞둔 어느날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당과 정  
부에서 전쟁로병들을 우대해주어 그들이  
전쟁참가자라는 긍지감을 가지고 자기의  
한생을 긍지높이 총화할수 있게 하여야 한  
다고 하시면서 전쟁로병들을 평양에 불러  
다 전승절을 크게 쇠는것을 해마다 전통화  
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전승절행사를 올해뿐 아니라  
해마다 계속 크게 쇠게 된다는것을 전쟁로  
병들에게 다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그렇  
게 하면 전쟁로병들이 올해의 전승절행사  
에 다 참가하지 못해도 다음해에는 참가할  
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고 건강관리를 더

잘할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이날 그이께서는 행사에 참가하는 전쟁로병들을 비행기도 동원하고 버스나 열차를 동원하여 평양에 올려오도록 하여야 한다고 은정어린 조치도 취해주시며 전승절 행사준비와 관련하여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그이의 마음속에는 로병들이 자신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로 자리잡고있었으며 그들을 대하시는 그이의 립장은 더없이 순결하고 정갈한것이였다.

꿈에도 생각지 못한 크나큰 은정속에 로병들을 태운 특별비행기와 특별열차, 배와 버스들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마련해주신 사랑의 대통로를 따라 평양으로 달리였다.

로병들을 태운 버스들이 지나갈 때면 시민들이 환영의 꽃바다를 이루고 열렬히 축

하해주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대회기간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로병들을 위해 주실수 있는 사랑과 정을 다 부어주시였다.

로병들이 대회에 참가하였던 나날을 일생 잊지 않도록 해주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수여할 대표증 하나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신 그이이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수령님의 영상을 영원히 몸가까이 모시고 살고싶어하는 로병들의 심정까지 헤아리시여 대표증에 원수복을 입으시고 전승의 광장에 서시여 태양처럼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손을 들어 답례를 보내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모시도록 해주시였다.

그리고 년로한 로병들의 건강을 걱정하시며 그들의 생활상편의를 최대한 도모하여 대회참가증도 로병들이 편안히 앉아

서 받아안도록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시  
였다.

이렇게 되어 숙소에서는 대회참가자들이  
자기 호실에 앉아서 참가증을 수여받는 우  
리 나라 대회력사에 있어본적이 없는 감격  
적인 화폭이 펼쳐지게 되었다.

금시 포연내가 몽클하니 풍겨올듯싶은  
전화의 군복차림에도 가슴뜨거운 사연이  
깃들어있다.

전승절경축행사에 참가하는 전쟁로병들  
에게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입었던것과  
같은 군복을 해당 군종별로 해입히면 그  
들이 대단히 좋아할것이라고, 전쟁로병대표  
들이 전쟁시기와 같은 군복을 입고 훈장  
까지 달고 전승절경축행사에 참가하면 행  
사가 더 이채롭게 될것이라고 뜨겁게 말씀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이렇게 우리 원수님의 사랑과 정이 유



정한 군복천이 되고 번쩍이는 군복단추가 되고 빛나는 견장이 되어 전화의 날과 똑같은 군복을 로병들이 받아안게 되었다.

로병들에 대한 그이의 은정깊은 사랑은 몸소 짜주신 음식차림표와 생일상들에도 뜨겁게 어려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나이도 많은 로병들의 식성까지 헤아리시여 그들의 식사조건보장을 위해 철갑상어와 룡정어, 자라, 해삼, 전복 등 귀한 원자재들도 특별히 보내주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희귀하고 민족적향취가 풍기는 가지가지의 고급료리들과 보양음식들이 로병들의 식탁에 오르게 되였다.

아마도 우리 로병들처럼 위대한 사랑, 크나큰 은정에 떠받들려 생의 말년에도 이처럼 행복과 영광의 주인공으로 사는 사람

들은 없을것이다.

받아안기에는 너무도 크고 가슴벅찬 모든 특전과 특혜를 다 받아안으며 로병들은 가슴을 들먹이었다.

세월속에 희여진 백발, 깊어가는 주름과 함께 이제는 나이가 들어 어쩔수 없다고 생각하였던 그들이였다.

그러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국을 위해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쳐싸운 전화의 영웅들에게 인생의 행복과 영광을 하나라도 더 안겨주고싶으시여 그렇듯 마음쓰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해마다 진행되는 대회들에서 로병들에게 최상최대의 존경을 표시하시고 주실수 있는 믿음과 영광을 다 안겨주시였다.

몸소 대회장의 뜻깊은 연단에서 로병들에게 깊이 허리굽혀 인사를 하시며 존경

하는 로병동지들이라고 정답아 축하연설을 하시던 그이의 영상은 오늘도 로병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모습으로 새겨져있다.

로병대회들에서 우리의 전쟁로병들을 금은보화에도 비길수 없는 나라의 귀중한 보배로, 후대들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친 훌륭한 혁명가, 애국자들이며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우리 혁명의 보배라고 따뜻이 불러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로병들을 후세토록 길이 찬양하고 본받아야 할 고마운 은인들, 참다운 스승들로 높이 내세워주시고 로병들의 건강장수를 축원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은 전쟁로병들만이 아닌 온 나라 인민의 심장을 짝 틀어잡았다.

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축하연설을 되새기며 로병들은 한밤이 지새도

록 이야기꽃을 피웠고 자기들의 심정을 일기장들에 그대로 적었다.

《요즘은 자꾸만 가슴이 울렁거리 눈물만 난다. 금은보화에도 비길수 없는 나라의 귀중한 보배, 피로써 조국을 지키는 은인! 잠들수가 없다. 크나큰 걱정애 눈물을 건잡을수 없다. 우리들을 그렇게 값높이 불러주시다니. 영원히 잊을수 없는 오늘을 가슴속에 고이 간직하고 살리라.》

나라의 귀중한 보배!

불러볼수록 로병들을 인생의 최절정에 올려세워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만이 안겨주실수 있는 값높은 부름이다.

문구마다에 진하게 스배여있는 사랑과 정은 대회참가자들과 모든 전쟁로병들을 올려주었고 인민의 심장마다에 송고한 도덕의리의 참뜻을 되새겨주었다.

세월속에 머리에 흰서리를 인 평범한 늙

은이들, 모든것이 이 땅 그 누구나와 꼭  
같이 그지없이 수수하고 소박한 사람들이  
로병들이다.

바로 이 평범한 사람들을 그이께서는  
귀중한 보배라고 값높이 불러주시며 영광  
과 행복의 절정우에 높이 받들어올리시  
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로병대회가 진행  
될 때마다 로병들을 위한 국가연회도 마  
련해주시고 빠짐없이 한품에 안아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는데도 눈물겨운 사랑  
이 깃들어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한번만이라도 보았으  
면, 먼발치에서나마 뵈옵고 환하신 모습  
우러러 환호의 박수라도 올리었으면 하는  
것이 경축행사에 참가한 로병들의 간절한  
마음이였다.

평양으로 내려주며 기쁜 소식 기다리겠다

던 마을사람들과 원수님 모시고 기념사진 꼭 찍고 오라고 손가락을 걸던 손자애의 모습이 떠올라 눈굽을 적시는 로병도 있었다.

그 마음들을 헤아리시고 로병들에게 주시는 사랑이 하나라도 부족할세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전쟁로병들이 이제는 모두 나이가 많을것이라고, 자신께서는 전쟁로병들이 더 늙기 전에 그들을 만나 기념사진도 함께 찍고 국가연회도 차려주려고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로병들 누구나 인생의 크나큰 영광의 시각을 맞이하게 되었던것이다.

로병들은 기념촬영장에 가서도 자신들의 평생소원이 풀린다는것이 믿어지지 않아 자기들을 잊고 서있었다.

꿈결에도 뵈고싶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해빛같은 미소를 지으시며 가까이 다가오

시여 자기들에게 먼저 인사를 하실 때 로병들은 저도 모르게 그이의 품에 달려가 허물없이 안기였다.

전화의 나날 억세계 총을 틀어쥐고 조국을 지키는 로병들의 손, 이제는 나이와 함께 주름이 잡힌 그 손들을 잡아주시는 그이를 우러르며 로병들은 그냥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다.

환호를 울리는 그들속에는 원수님께서 조국해방전쟁시기 전투에서 손가락을 다 잃은 자기의 두손을 보시면 가슴아파하실 가봐 손을 감추는 로병도 있었다.

한생 마음껏 쓸수 없어 야속하게만 보이던 손, 누구에게도 보이지 저어하던 로병의 손이었다.

그러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전화의 불길속에서 조국을 지키는 로병의 손이어서 더더욱 스스럼없이 잡아주시였다.

그렇게도 저어하던 손을 내밀고 그이의 따뜻한 손길에 이끌려 로병은 오열을 터뜨리고말았다.

정말이지 따사로운 태양의 품에 온 나라 로병들이 다 안기는 뜻깊은 순간이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제4차 전국로병 대회때에는 승리의 날을 보지 못하고 먼저간 전우들을 잊지 못해하는 로병들의 마음까지 헤아리시여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앞에서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는 사랑의 화폭도 남겨주시였다.

이뿐이 아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귀중한 시간을 내시여 로병들과 함께 명성높은 예술단체의 경축공연도 함께 관람하시고 영웅전사들의 위훈을 축포야회의 불보라로 빛내여주시였다.

이제는 고목이나 다름없다고 여겨온 로



병들이 인생말년에 환희와 행복, 희망과 열정의 청춘기를 되찾았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한껏 비쳐주시는 따사로운 해빛이 시들어가던 인생고목에 다시금 생의 희열과 활력을 안겨주어 재생의 꽃을 피워주었다.

행복에 겨워 울고웃으며 만시름 다 잊고 노래하고 춤추는 로병들을 한없이 정다운 시선으로 바라보시며 그들의 소원을 다소나마 풀어줄수 있게 된 무한한 행복감으로 마냥 기쁨을 금치 못하신 원수님.

진정한 인간애는 돌우에도 그윽한 향기를 풍기는 꽃을 피운다.

참으로 우리 원수님의 숭고한 혁명적 의리와 위대한 인간애의 향기에 로병들의 인생에 생기가 넘치고 고목에 재생의 따스한 봄이 찾아들었던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한껏 비쳐주시는

그 빛은 마른 고목의 가지에도 봄날의 화창한 꽃을 피워주신 사랑의 해빛이였고 기쁨과 행복의 열매를 일시에 주렁지게 한 태양의 열도였다.

그 누가 말했던가. 고목인생에는 눈물이 마른다고.

하지만 로병들의 눈에서는 그이께서 안겨주신 그 은정이 고마워 뜨거운것이 줄줄이 흘러내렸다.

진정 로병들을 나라의 귀중한 보배로 내세워주시고 그들의 삶을 최상의 경지에서 빛내여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이야말로 우리 전승세대가 안겨살 영원한 삶의 요람이다.

## 로당익장하시라!

우리 로병들을 금은보화에도 비길 수 없는 보배로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그들의 고목같은 인생에 빛과 열을 주어 꽃을 피워주시고도 그 꽃이 영원히 지지 않도록 가꿔주고 보살펴 주신다.

로병들이 누려가는 긍지높고 행복한 삶, 거기에는 로병들에게 사소한 불편이라도 있을세라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보살펴주시는 우리 원수님의 따뜻한 은정이 깃들어 있다.

여기에 잊지 못할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

어느해 12월의 이른새벽.

그때까지 집무실에서 문건을 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부르시  
였다.

일군들은 중요한 문제가 제기되었으리라  
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뜻밖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물으신것은 한 일군의 건강상태였다.

그 일군으로 말하면 지난 조국해방전쟁  
시기부터 혁명의 군복을 입고 당을 받들어  
충직하게 일해온 전쟁로병이었다.

건강상태가 악화된 속에서도 그는 신심  
과 락관을 잃지 않고 맡은 사업에 심혼을  
쏟고있었다.

그의 소행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전  
화의 불비속을 헤쳐온 전승세대의 정신세계  
를 감동깊이 절감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  
시였다.

전쟁로병들을 위하시는 그이의 고결한  
덕망에 감동을 금치 못하며 일군들은 로병

의 건강상태가 많이 좋아졌다는것을 말씀 올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자신께서 오늘 제일 기쁜것은 그 동무의 건강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는것이라고 진정에 넘쳐 말씀 하시였다.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시던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전쟁로병들을 아끼고 내세워주어야 하며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당과 혁명에 충성다하도록 건강을 잘 돌봐줄데 대하여 간곡히 이르시였다.

그러시고는 문득 그가 종합검진을 언제 하는가고 물으시였다.

검진날자를 료해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검진결과를 자신께 알려줄데 대하여 이르시였다.

하셔야 할 사업이 많고 또 헤아리셔야 할 문제가 많으신 것처럼 분망하신 속에서

도 한 전쟁로병의 건강검진결과까지 관심하시는 원수님의 모습을 우러르며 일군들은 끓어오르는 걱정으로 마음을 진정할 수 없었다.

그러는 일군들에게 그이께서는 로병의 안해에게 로병이 섭생을 잘하도록 하며 치료시간과 약먹는 시간을 무조건 지키도록 간호를 잘해달라는 자신의 부탁과 인사를 전해줄데 대하여 간곡히 당부하시였다.

일군들로부터 이 사실을 전해듣고 로병과 그의 가족들은 형언할수 없는 감격과 환희에 휩싸여 오열을 터뜨리였다.

이것은 한 전쟁로병만의 체험과 감격이 아니다.

온 나라 로병들모두가 우리 원수님의 이런 사랑과 축복속에 영광의 삶을 누리고 있다.

로병동지들이 건강한 몸으로 앉아만 계

셔도 우리 당과 인민에게는 무한한 힘이 되고 우리 혁명에 커다란 고무로 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로병들은 오늘도 구절구절 소중히 안고 산다.

전쟁로병들을 귀중히 여기시며 혁명선배로 존대하고 내세워주시는 그이의 숭고한 사랑의 세계는 끝이 없다.

그들이 로당익장하도록 진함없는 열과정을 부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전승절에 즈음하여 로병들과 전승절을 함께 경축하시며 주실수 있는 사랑과 믿음을 다 안겨주시고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대회참가자들이 양덕온천문화휴양지에서 즐거운 휴식의 나날을 보내도록 또다시 배려해주시었다.

그이의 각별한 은정속에 온천문명의 희한한 별천지를 찾은 로병들은 휴양의 전기간 귀빈으로 특별한 환대를 받았다.

로병들은 아름다운 산천경계를 부감하고 야외온천장과 금당화욕조, 솔잎욕조, 약쭉욕조 등 수십개의 개별욕조들로 이루어진 실내온천장에서 덕수도 맞고 약온탕도 하였다.

각종 운동기재와 문화오락기재들이 가득찬 종합봉사소, 온천닭알의 별미를 느껴보는 닭알삶는 터 등 휴양지의 곳곳마다는 친절한 편의봉사를 받으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로병들로 흥성이었다.

전우들과 모여앉아 전시가요도 부르고 흥겨운 민요가락에 맞추어 춤도 추며 로병들은 청춘을 되찾은것만 같아 흥분된 심정을 금치 못하였다.

혁명의 선배인 로병들이 건강장수하기를 바라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전쟁로병들을 사회적으로 적극 내세우고 우대하며 생활에서 아무런 불편도 없도록 진정을 다



하여 돌보아주는 기풍이 온 나라에 차넘치도록 하시였다.

푸르싱싱한 나무들과 새들의 유정한 울음소리, 기묘한 봉우리들 모든것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경치로 하여 평양의 금강산이라고 불리우는 룡악산에 로병들을 위한 사랑의 집이 있다.

그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은정 속에 특색있게 건설된 평양시전쟁로병보양소이다.

보양소에는 로병들의 휴식과 치료에 필요한 모든 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져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몸소 평양시전쟁로병보양소설계안을 지도하여주시고 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였다.

로병들모두의 가슴마다에 위대한 전승세대라는 긍지를 간직하게 하시려고 마음쓰

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직접적인 발기에 의하여 평양시뿐 아니라 모든 도들에 똑같은 형성도안으로 보양소들이 훌륭히 꾸려져 로병들에게 청춘의 젊음을 안겨주고 있다.

보양소내부의 벽체와 계단마다에는 나이 많은 로병들이 걸어다닐 때 넘어질세라 손잡이들이 특색있게 달려있고 폭신한 의자들도 놓여있다.

침실에 들어서면 폭신평신했 침대며 옷걸이와 랭동기 등 멋진 가구비품들이 그쁘히 갖추어져 환하면서도 아늑하고 정갈한감을 준다.

또 목욕실에는 초음파와 덕수시설이 갖추어져있고 물탱크높이도 로병들이 심장부담을 받지 않도록 알맞게 설계되어 있다.

웃음가득 안겨주는 오락실이며 도서실,

물고기떼 춤을 추는 낚시터, 운동실, 안마실과 치료실, 민족적향취가 풍기고 가정적분위기가 살아나는 식사실 등 보양소의 모든것이 로병들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며 그들의 기호와 심리에 맞게 나무랄데가 없다.

로병들을 위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은 보양소에 있는 승강기 하나만을 놓고도 찾아볼수 있다.

불과 한층을 오르게 될 로병들의 편의를 위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멋진 승강기까지 놓아주도록 하시였다.

로병들의 생활에서 사소한 불편이라도 있을세라 친자식들처럼 돌봐주는 보양소일군들과 종업원들의 마음 또한 정말 구체적이고 사려깊다.

건강에 항상 주의를 돌려주는 의사들과 로병들의 구미에 맞게 식사를 보장하기

위해 애쓰는 취사원들, 갖가지 당과류를 들고와 밝게 웃으며 입에까지 넣어주는 봉사원처녀...

《우리 원수님께서 로병동지들을 이렇게 보살피라고 하시였습니다.》

진정어린 이들의 대답에 로병들은 위대한 조국수호정신을 창조한 귀중한 보배들로 아끼고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을 다시금 절감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곤 한다.

잔근심도 늙음도 털어버리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로병들은 이 사랑의 집에서 누구라 할것없이 더 건강해지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있다.

전화의 영웅들을 진정으로 위하며 보살피는것은 오늘 우리 사회의 미풍으로, 응당한 도덕의리심의 표현으로 되고있다.

버스와 궤도전차, 병원과 상점, 식당 등

그 어디에서나 전쟁로병들을 우선적으로 봉사해주고 친혈육의 심정으로 대해주며 그들의 숭고한 정신과 빛나는 위훈을 값높이 내세워주고있다.

그 어디에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토록 아끼시는 전쟁로병들의 자리가 언제나 따로 있다.

제일 훌륭하고 모두가 존경심을 안고 보게 되는 그런 자리가 바로 전쟁로병들의 자리이다.

정말 우리 전쟁로병들처럼 한없이 따사로운 품에 안겨 사회적으로 극진한 존대와 우대를 받으며 가장 존엄높고 행복한 삶을 누려가는 로병들은 없다.

하기에 로병들은 남은 생을 편안히 보낸다고 하여 닳할 사람은 없지만 그 사랑에 보답하는것으로써 후대들에게 조국수호정신을 심어주고있다.

흐르는 세월과 함께 인간의 로화는 어  
쩔수 없는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전쟁로병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은정속에 영원히 로쇠를  
모르며 오늘도 래일도 가장 긍지높은 전승  
세대로 시대의 경의를 받을것이니.

위대한 년대의 전승세대여.

따뜻한 태양의 품속에서 영원히 로당익  
장하시라!

## 보 배

---

집 필	안 순 금
장 정	김 영 일
교 정	리 명 찬
낸 곳	평 양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인 쇄 공 장
인 쇄	주체111(2022)년 6월 10일
발 행	주체111(2022)년 6월 13일

---

7-1542ㄷ